

# 농촌과 도시가 부르는 하나의 노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는 한국 불교의 취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천구에 생령과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인드라망은 마찬가지로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선센터와 함께 주민들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10월 29일 양천 공원에서 열린 '2011 가을 한마당'은 불교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도시에서 펼치는 보기 드문 행사였다.



2011 가을 한마당'에 참가한 주민들이 인드라망 생령의 물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아침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농 교류와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행사가 위축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행사 전에 비가 그쳤고, '2011 가을 한마당'은 길놀이로 시작으로 뜻 깊은 출발을 알렸다.

'가을 한마당'은 인드라망이 2003년부터 소속 회원과 불교신도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마을 장터 형식의 축제다. 그동안 사찰 안에서 진행했으나 올해는 더 많은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사찰을 벗어나 지역 속으로 뛰어 들었다.

인드라망은 이번 축제를 위해 양천구에서 활동 중인 단체 및 기관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축제를 기획해 왔다. 축제의 출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것이다. 6월 첫 준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친환경', '도농교류', '마을축제'라는 주제를 갖고 양천지역 14개 단체들과 수시로 만났다. 2010년 11월 양천구 신정동에서 개관한 국제선센터(주지 현호)도 인드라망과 함께 행사를 준비했다. 그렇게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교류, 지역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 도시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꿈꾸는 '2011 가을 한마당'이 시작됐다.

"하늘과 땅에 감사"  
'2011 가을 한마당'의 시작을 알리는 길

## 지역공동체 형성 애쓴 인드라망

### 주민·단체들과 화합의 잔치 열어

### 지역관계자들 "첫 시도 기대 크다"

### 주민들 부스 체험하며 도농 교류

놀이가 끝나자 도법 스님이 양천공원 무대 위에 올랐다. 기념식장에는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국제선센터 주지 현호 스님과 이경동 양천문화원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김미선 iCOOP 양천생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도법 스님은 "사회 양극화와 생태, 인간 소외의 문제 해결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런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다. 도시와 농촌, 이웃과 이웃이 만나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이 마무리 되면서 곡식들이 알차게 영글도록 돌봐준 하늘과 땅에 대한 감사의 뜻을 올리는 추수 감사제가 열렸다. 추수 감사제 상차림은 '2011 가을 한마당'에 참가한 농민과 단체들의 생산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참가단체들과 농민, 지역주민들은 차례로 제상 앞에서 음복을 하고 '2011 가을 한마당'의 원만한 회향과 앞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을 기원했다.

### 가족과 손잡고, 이웃과 하나되기

이번 '2011 가을한마당'에는 20여 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단체들이 마련한 부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인드라망은 귀농귀촌 알림마당과 인드라망 생령의 친환경 생활재를 홍보하는 마당을 운영했다. 국제선센터도 북카페, 청년회, 탁본인경체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렸다.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양천생활자치네트워크도 공정무역,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찾기 홍보 부스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정보를 교류했다. 양천문화원은 디카콘테스트를 개최해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말을 맞아 어린 자녀들과 함께 행사장을 방문한 가족단위 참가자들은 각종 체험 마당에 관심을 보였다. 행사장 한 가운데에서는 행사 내내 무료로 뽕튀기를 나눠줘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 했다. 어른들도 오랜만에 뽕튀기 제작 과정을 지켜보면서 옛 추억에 사로잡혔다.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은 굴렁쇠 굴리기에 도전했다가 생각처럼 되지 않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어른들이 숙련된 시범을 보이자 금방 따라하며 시

간가는 줄 모르고 굴렁쇠 굴리기에 푹 빠져들었다. 불자 어르신들도 연꽃 만들기 체험 부스에서 환희심 가득한 표정으로 연꽃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인드라망 생령도 주민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인드라망은 부스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물품들을 소개하면서 인드라망이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알렸다.

특히 이번 행사가 도농 교류의 일환으로 열린 만큼 친환경 농산물 알림마당은 주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불교귀농학교 12기 이석민 씨는 경북 상주에서 생산한 감식초 모과 돌배 알토란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16기 이인석 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생산한 야콘, 고구마, 밤 등을 판매했다. 또한 전북 남원 지리산 친환경농조합, 강원도 횡성 공동체지원농업센터, 경기도 이천 참농영농조합 등이 저마다 정성스럽게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선보였다. 양천주민들은 각 농산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경청한 뒤,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도농간의 상생을 실현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했다.

김미선 iCOOP 양천생협 이사장은 "지역 축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꾸준히 지속된다면 도농교류의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도시가 연꽃이면 농촌과 자연은 뿌리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지역사회 관심 강조



"지역은 도시의 뿌리다. 생태적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법 스님(사진)은 '2011 가을한마당'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불교의 지역사회 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드라망과 실상사를 통해 실천해 온 지역공동체 활동이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스님은 "불교와 사찰들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뿌리다. 지역과 사회를 위해 우리가 활동을 해야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을한마당 축제도 인드라망이 위치하고 있는 양천구를 토대로 도시 공동체 형성에 나서겠다는 시도였다. 도시에서의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지역 단체 및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더구나 대형 사찰도 아닌 인드라망이 활동가들의 힘으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이웃 종교인들까지 행사장을 방문해 양천구의 종교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도법 스님은 "도시가 연꽃이라면 농촌과 자연은 뿌리다. 연꽃이 고갈되면 연꽃은 시들 수 밖에 없다. 지역공동체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져도 지켜내야 할 중요한 가치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지역공동체 일, 청년이 빠질 수 있나요

### 국제선센터 청년회 부회장 구민영



지역 불교활성화는 물론이고 불교계의 모든 현안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청년 불자다. 그러나 이번 '2011 가을한마당'에서는 청년 불자들의 희망찬 에너지가 가득했다.

국제선센터 청년회(회장 안상욱)와 회원들이 청년 특유의 패기를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들은 자체 부스를 마련하고 음식장만부터 판매까지 모두 직접 진행했다.

"함께 모여서 틈을 나누고 회의를 하며 준비 했어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청년들이 빠질 수 없잖아요."

국제선센터 청년회 구민영 부회장(사진)과 청년회원들은 이날 어묵과 떡을 팔면서 국제선센터와 청년회 홍보 활동도 펼쳤다.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준비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도농 상생과 도시 공동체 만들기의 가치를 이해했기에 청년회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구 부회장과 청년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또래 청년과 직장인들을 직접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선센터 청년회는 10월 16일 '꿈'의 발대식을 갖고 청소년과 직장인들을 위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

구민영 부회장은 "국제선센터가 양천구에서 문을 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 내년에는 청년회가 좀 더 내실 있는 모습으로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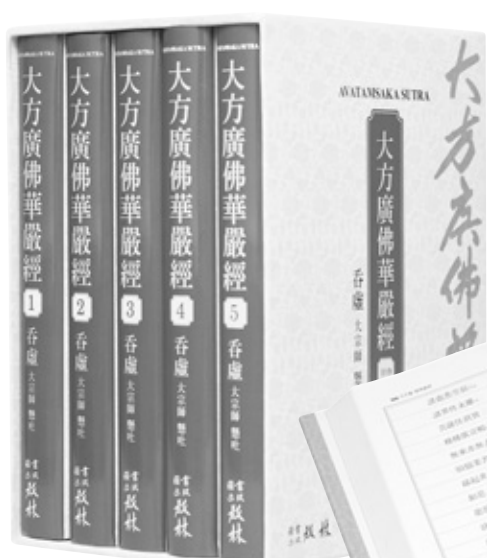
박기범 기자

##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 특별판매

현불상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첩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집 | 금강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마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철2도 인쇄

현불상 02)2004-8215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험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들)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내분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전발전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가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